

그 사람 지금은

(25) 남도문인화 맥 잇는 박행보 화백

■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 일곡동 모룡대길

“대나무에 심취...싫증나지 않는 그림 그리고파”

“그림이 특별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맘을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게 그림 아니겠습니까. 좋은 그림의 기준도 다양하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다면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화력 50년의 경륜을 통해 남도 문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금봉(金峰) 박행보(73) 화백.

지역의 몇 안된 국전 추천작가로 명망을 얻고 있는 박 화백의 그림에 대한 정의는 의외로 단순했다.

6년 만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대동갤러리에서 초대전(5일~11일)을 갖고 있는 박 화백을 만났다.

“스물 다섯 살 되던 해에 의재 허백련 선생님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환쟁이라고 해서 사회의 푸대접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끌려가 혼계도 들고, 집안 반대도 심했지만 그림 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진도 군내면 북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그는 초등학교 때 선생들의 칭찬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해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못했고, 말도 어눌해 혼자서 작업하는 그림이 성격에도



1980년 예술원회장인 故 윌탄 박중화 선생으로부터 국전 추천작가상을 받고 있는 박행보(왼쪽) 화백.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 사표를 냈습니다”

“안정된 봉급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점이 많다”는 동료 교수들의 만류와 ‘사회적 지위,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교수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가족들의 설득을 모두 물리치고 5년간 몸담았던 교수직을 그만 둔 것이다.

머리 속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생각 밖에 없던 그로서는 교수 활동도 그저 허송세월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그림에 대한 집념 탓인지 7명의 자녀 중 4명이 미술대를 졸업했다. 이중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는 5녀 박혜정 씨다. 지난 2001년 광주시미술대전과 무등미술대전, 한국화 전국공모대전에서 잇따라 특선을 수상, 지역 화단의 주목을

57세때 교수직 그만두고 그림에 전념

“6년만에 개인전 열여 가슴 설레”

받고 있다. 교수직을 떠난 지 15년이 흐른 지금, 그는 대나무 그리기에 심취해 있다.

대나무는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부터 그려왔지만 여전히 가장 어려운 대상이라고 한다.

사군자는 다양한 기법과 선으로 작품이 완성되지만 대 그림은 유독 직선이 요구된다.

나무, 잎 등 모든 것이 직선으로 돼 있어 보기와는 달리 그릴수록 어렵다고 한다.

“15년을 대 그림에 정진했지만 아직도 아쉽기만 하다”는 그는 여전히 그림에 고뇌하는 정열을 간직하고 있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25세때 허백련 선생 문하에 들어가

국전 특선 6회 등 묵화 대가로 자리잡아

맞았다고 한다.

그의 정식 화필입문은 다른 작가들과 비교할 때 아주 뒤늦은 것이었다. 25세 때인 1959년부터 허백련 선생에게서 사군자(四君子)를 사사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다른 이들에 비해 뒤늦은 입문이었지만 남다른 성실과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그 결실은 한층 크고 빨랐다.

1969년부터 1977년 사이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특선 6회와 문화공보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등 매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주로 대나무와 모란꽃을 주제 삼았다. 묵화의 특출한 국전 수상 기록으로 1978년에는 추천작가라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가장 권위있는 국전에서 사군자로 입지를 굳힌 그가 추천작가가 된 직후의 1980년 국전에는 서예부 추천작가이면서도 전통적 문인화 성격의 인물산수화 ‘죽림유거’를 출품, 추천작가상까지 차지한 것은 그의 역량과 확장을 말해준다.

그 이후 그는 산수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1년의 대작 ‘추경산수’(김포공향 귀빈실)와 1982년 ‘산수화’(울산 현대조선소 영빈실) 등은 산수화 작가로서의 위상을 높인 대작들이었다.

그 기법과 표현 정신은 스승인 허백련의 뒤를 이으면서도 점차 자신만의 필법과 그림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산수화는 초창기 관념적인 형태에서 점차 실경의 사실적 표현과 현실감 있는 소재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의 그림은 흔히 보이는 산수화의 낯선 분위기와 달리 차

- 약력**
- ▲1935년 진도군 군내면 신동리 출생.
 -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6회
 - ▲국전 추천작가상
 - ▲호남대 미술과 교수
 - ▲광주비엔날레 이사
 - ▲(사)한국문인화협회 이사장

분하고 고즈넉한 고향의 친근감이 느껴진다.

호남지방의 야산이나 소나무 숲을 먹 선으로 그린 뒤, 담채로 가볍게 채색해 부드러움을 가미한 자신만의 독특한 산수화 이미지를 굳힌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림을 모르는 이들도 그의 산수화를 보면 전통적인 산수화이면서도 현대회화라는 느낌을 받는다.

평론가들이 그를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결전하고 있는 역량이 있는 화가로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대학교수 등을 지낸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지난 1991년 교수직을 그만 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호남대 미술과 교수로 재직중이었던 1991년 그는 갑자기 사직서를 쓰고 만다.

“화가는 일반적으로 60세부터 75세 사이에 작가로서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시기입니다. 당시 57세였기 때문에 좋은

신하가 임금 모시는 地勢 現 살레시오·송일학교 터

지난 2002년 광주시 새주소 안내지도가 발간됐다. 지난 5일부터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적용됐다. 일제 강점기 이후 거의 같은 체계로 유지해온 주소명칭의 변화다. 선진국형 제도지만, 새로 붙여진 지명을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북구 일곡지구와 우치공원 사이 시내버스 종점 동네에 ‘모룡대길’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매일 4천여명이 드나드는 길목이지만, 그 내력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은 없다. 다행히 일곡로 51번지 인도 폴싱 너머에 모룡대(慕龍臺)가 숨어 있다.

지난 1934년 노종구가 부친 훈규(1844~1915)의 유적을 기념키 위해 세운 건물이다. 한길 높이, 채 한 평도 안 되는 초미니 정자에는 글이 새겨진 목판이 21개나 걸려있어 버거울 정도다. 바로 곁 버마에는 ‘곡은노공훈규지전(谷隱盧公勳奎之冢)’이 음각된 비석도 있다.

기문을 정리하면 이곳 지세가 임금(龍)을 중심으로 여러 신하가 참모(瞻慕)하는 형국으로 모룡동이 비롯됐고, 바위가 벼처럼 솟아 높이를 자랑한 곳에 모룡대가 있



광주시 북구 일곡동 동아아파트 북쪽에 있는 모룡대 전경.

다. 북향으로 대를 건립한 것과 ‘어견(如見)’을 옆면에 붙여 충과 효를 함께 했음을 읽을 수 있다. 1924년관 광주읍지 효자란에 노훈규가 기록돼 있다.

서편 무등봉과 아홉 무덤봉에서 동편 아미산과 모룡대 벼랑 사이로 내린 벽계수 골은 ‘구상골’과 ‘별안골’이다. 뒷동 아미산과 안산 한새봉으로 예외 쌍인 음파지로 서출동입(西出東入)형 명당수가 흐른다.

호랑이 입(범아가리) 형세라던 범안골은 화장터로 알려졌다. 이곳에 1959년 중흥동에서 문을 연 살레시오중고등학교가 1989년 들어왔다. 이 학교 주소로 쓴 482번지는 1915년 논 1천289평으로 본촌리 전문창, 1922년 일곡리 381번지에 주소를 둔 노진영 소유였다. 1985년 학교법인 살레시오회가 4만여평에 터를 잡아 현재 중·고교 합해 45학급 1천730명이 재학 중이다.

1908년 양림동에서 개교하여 1971년 운암동으로 이전한 송일중고등학교가 1993년 아미산 자락에 새터를 잡았다. 이 학교 주소 산 71번지는 일제강점기에는 담양 수북면 고성리 이희광 소유였다가 1979년 송원학원, 이듬해 유은학원 소속이었다. 지금 중고 58학급 2천180명이 공부한다. 490번지에는 1987년 설립된 운수연수원이 있다.

모룡대길은 등하고 때 매우 복잡하다. 학생들 ‘용’으로 모실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기동설(奇東嵩)이 지은 모룡대팔경시 중 ‘아산명월(峨山明月)’이 떠오른다.

아미산 월반담이 가을하늘 떠오르니(峨岫山月半輪秋)/쌍계에 비친 월영 물과 흘러가네(影入雙溪水共流)/삼삼오오 때를 지어 그 경관 구경하니(三五良看齊景)/등파란 그 모습이 남주에 으뜸이라(等巴勝狀擅南州).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기스타·세기보청기